

# 다니엘서 - 번호 186

파니움의 약속: 최종 봉인과 한밤중의 외침 계시

Jeff Pippenger

2024-04-16

파니움, 곧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 역사, 곧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뿌들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수수께끼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이 십사만 사천 명에게 영구히 인쳐지며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도착하는 그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세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곧 다가올 일요일법으로 끝나는 인침의 기간은 알파와 오메가께서 설계하신 것이다. 그 기간의 마지막 부분은 처음 부분을 반복한다. 2001년 9월 11일에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옛 길로 다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일곱 때'를 발견했는데, 이는 요시아 왕의 시대에 발견된 것과 같았다. 그때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분리해 내는 시험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하박국 2장이 성취되면서 두 개의 거룩한 도표가 발견되어 그 역사적 시기의 상징이 되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박국 2장의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늦은 비의 방법론인 '줄 위에 줄'과 1863년의 반역을 기점으로 재림운동이 점진적으로 받아들인 배도한 개신교의 방법론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밤중의 외침과 큰 외침의 기별을 분별하고 확립하며 선포하는 데 필요한 예언적 열쇠들을 담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 방법론을 가리키고 계신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길을 부패시켜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 이 땅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증가한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아들과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진리가 그들에게 펼쳐진다. 성육신의 교리는 은은한 광채로 빛난다. 그들은 성경이 모든 신비를 열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본다. 빛을 받아들이지도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려 했던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The Southern Watchman, 1905년 4월 4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자들, 곧 십사만 사천은 2001년 9월 11일에 도착했고 2023년 7월부터 지금 반복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1856년에 도착한 라오디게아 기별은 '일곱 때'에 대한 지식의 증대였고, 그리스도께서 마른 뼈들을 함께 모으시고 그 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들은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옮겨간다. 그러한 전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니, 그들이 그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의 말씀은 '진리'요, 그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여는 '열쇠'이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도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3:7-8.

"line upon line"의 방법론은 "문들"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세의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열쇠이다. "문"은 교회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 얼마나 두렵도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16, 17.

성문에서의 전투는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전투를 상징하며, 그리스 종교의 오류는 지옥의 문이고, 배도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라는 종교도 또한 하나의 문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문은 하박국의 논쟁이 성취되는 장소를 상징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남은 백성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움의 왕관이 되시고,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며, 전투를 성문으로 돌려세우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러나 그들 또한 포도주로 그릇 행하고, 독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고, 포도주에 삼켜졌으며, 독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에서 그르치고, 판결에서 비틀거리느니라.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치며, 교훈을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랴? 젖에서 막 떼어낸 자, 젖가슴에서 막 떼어낸 자들에게로다. 이는 명령 위에 명령, 명령 위에 명령;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어야 함이라.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명령 위에 명령, 명령 위에 명령;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28:5-14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세의 백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다.

말씀 속에는 귀금속의 광맥처럼 표면 아래에 감추어진 진리들이 있다. 감추어진 보화는 광부가 금과 은을 찾듯이 찾을 때 발견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는 말씀 자체 안에 있다. 성경은 성경을 푸는 열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답긴 깊은 의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펼쳐진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경은 위대한 교과서이다. 그것은 아담의 자녀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친다. 그것은 생애의 규범이며, 우리가 장차 올 생애를 위해 형성해야 할 품성을 가르친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전통의 희미한 빛은 필요 없다. 마치 한낮의 태양이 그 영광을 더하려면 이 땅의 미약한 햇불빛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을 오류에서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과 목사의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성한 신탁에 묻는 자들은 빛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의무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주어진 모든 교훈은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교훈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낸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과학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증언, 8권, 157쪽.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신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때와 같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

베드로는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고백했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를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 영예롭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며, 그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이 말씀들은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닌다. 그것들은 사람이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는 조건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다. 그들의 사명에는 영원한 결과가 달려 있다." 시대의 소망, 413.

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권능이 사람들의 손에 주어질 때, 그것은 그의 말씀에서 밝혀진 원칙들에 근거한다.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것은, 진리가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 확립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대한 악은 형제들이 서로를 상대로 법정에서 가는 일이었다. 신자들 사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방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주셨다.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구주께서 권면하셨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15-18. 사도행적, 304.

한밤중의 외침 때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시기를 증언하는 지리적 증언이 적어도 세 가지 있다. 한밤중의 외침이 있을 때는 기름을 얻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엑서터 야영 집회의 지리적 증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이 인침을 받는 지점을 보여 주는 한 예를 보게 되고, 그 진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리로,

또한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파니움 전투의 증언으로도 제시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세 가지 증언을 지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소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엑서터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지리가 분명히 배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처하게 될 예언적 지리 속에 두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명령을 주신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19-23.

"Exeter"라는 단어는 잉글랜드 데번 주의 한 도시 이름이다. 그 어원은 고대 영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에는 "Exanceaster" 또는 "Execestre"로 불렸다. 이 이름은 고대 영어의 "Exe"(도시가 자리한 엑스 강을 가리킴)와 "ceaster"("로마 요새" 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뜻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Exeter"는 "엑스 강가의 요새" 또는 "엑스 강가의 성벽 도시"를 의미한다. 밀러파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도래와 성취와 관련된 지리적 맥락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물이 있던 장소와,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할 군대를 일으키고 계셨던 지점을 가리킨다. 화이트 자매는 그것이 "해일"처럼 퍼져 나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일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특별히 강력한 힘이 실린 물이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는 열 처녀의 비유의 성취였고, 14만 4천이 인치는 때의 결말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인치는 때의 시작에서 식별된 이정표들을 반복할 것이며, 엑서터 야영 집회의 역사도 반복할 것이다. 먹어야 하는 시험의 기별을 가지고 한 천사가 내려올 것이다. 그 기별은 기초로 인도할 것이며,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두 부류를 맞닥뜨리게 할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에 의해, 신성한 상징이 비둘기 형태로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부음 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포함할 것이며, 이는 2001년 9월 11일을 예표한다. 또한 그것은 예수께서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 안에 타락한 인류의 육신을 취하심으로 그분이 또한 인자이심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진리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낳을 것이다. 그 두 부류는 엑서터 캠프 집회에서 드러났는데, 그 집회에서 워터타운에서 온 한 무리가 사무엘 스노를 통해 제시된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거절하고 천막 하나를 세웠다. 그들은 너무 시끄럽고 감정적인 거짓 집회를 열었고, 스노의 집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조용히 하라고 알렸다. 그 캠프 집회에서는 두 부류가 드러났고, 둘 다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자처했지만, 하나는 가짜였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들을 대표했다. 엑서터 천막에 있던 그 무리는 군대였고, 그 군대는 성이자 요새였다. 이는 그들이 에스겔의 죽어 말라버린 뼈들이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로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부류가 드러난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두 부류 모두를 대표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힌 그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알리셨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 없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꾸짖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감정의 폭발은 사무엘 스노가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전하던 때 워터타운 천막에서 벌어지고 있던 감정적인 예배와 궤를 같이했다. 그 차원에서 베드로는 14만 4천에 들 후보자들을 대표한다. 그 후보자들은 기름, 곧 성령을 가진 한 부류를 대표하는데, 그 기름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품성이기도 하다. 다른 부류는 그 기름이 없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펼쳐 보이기 시작하셨다.

그 사건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실망은, 화잇 여사가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과,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고 앞에는 바다의 물이 가로막았던 홍해 도하에서 히브리인들이 겪은 실망을 예증하기 위해 사용한 역사이다. 그 모든 증언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을 지목하며,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의 계시는 그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또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부분"을 대표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모형과 실체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연례 절기들 가운데 유월절 어린양이 잡히던 바로 그날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게 했다. 그렇다면 일곱째 달 열흘에 해당하는 속죄일에 예표된 성소의 정결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그 예표가 기념되는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The Great Controversy, 399 참조). 이는 모세 율법에 따른 참된 시간 계산에 따르면 10월 22일이 된다. 1844년 8월 초, 뉴햄프셔 엑서터에서 열린 야영 집회에서 이 견해가 소개되었고, 2,300일 예언이 성취될 날짜로 받아들여졌다. 마태복음 25:1-13의 열 처녀 비유는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는데—신랑의 지체, 혼인을 기다리던 이들의 기다림과 졸음, 밤중의 외침, 문이 닫힘 등등. 그리스도께서 10월 22일에 오신다는 기별은 '한밤중 외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밤중 외침은 수천 명의 신자들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엘렌 화잇은 썼다. 그녀는 덧붙였다:

'거대한 해일처럼 [일곱째 달] 운동이 온 땅을 휩쓸었다.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외진 시골 지역들까지 퍼져 나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이어졌다.-위대한 논쟁, 400.'

그 메시지가 퍼져 나간 속도는 L. E. Froom이 인용한 작가들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베이츠는 엑서터의 메시지가 '마치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간 듯했다'고 기록을 남겼다. 남녀는 책과 문서 뭉치를 들고 철도와 수로를 이용하고, 역마차와 말을 타고 급히 이동하여 그것들을 '가을의 낙엽처럼 풍성하게' 배포했다. 화이트는 말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은 그 넓은 들판의 모든 곳으로 날아가 경보를 울리고, 잠자는 이들을 깨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웰컴은 이 운동이 댐에서 풀려난 물처럼 터져 나왔다고 덧붙인다. 익은 곡식밭은 수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고, 다 자란 감자들은 땅속에 캐지 않은 채 남겨졌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제 그런 세상 일에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었다.-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IV, p. 816.

그 운동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 엘렌 화이트는 급속히 가속화되던 활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신자들은 그들의 의심과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소망과 용기가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어하시는 영향 없이 인간적 흥분만 있을 때 늘 나타나는 그러한 극단들에서 자유로웠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황홀한 기쁨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세상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고뇌하는 심령들의 짐이었다....'

'사도들의 시대 이래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들 가운데 1844년 가을의 그 운동만큼 인간의 불완전과 사탄의 꾀계에서 더 자유로웠던 것은 없었다. 지금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1888], 그 운동에 동참했고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선 모든 이들은 여전히 그 복된 사업의 거룩한 감화를 느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한다.-같은 책, 400, 401.'

나라 전역을 휩쓴 한 운동이 일어나 수천 명을 재림 신앙의 교제 안으로 이끌었다는 증거가 있었고, 여러 교단의 약 이백 명의 목회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에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조 C. M. Maxwell, Tell it to the world, pp. 19, 20.] 개신교계 전반은 그것을 배척하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믿음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중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교회 예배에서 예수님의 속히 오심에 대한 소망을 언급할 엄두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사건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사정이 사뭇 달랐다.

엘렌 화이트는 그것이 어떠했는지 말했다:

'내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지극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영원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다.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귀한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의 때에 이르렀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증거를 얻는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는 거룩함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를 향한 관심이 커졌고, 우리는 서로와 함께, 또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 드리기 위해 과수원과 숲에 모여, 그분의 창조물에 둘러싸일 때 그분의 임재를 더 분명히 느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음식과 마실 것보다 더 필요했다. 만일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으로 그 구름이 걷히기까지 우리는 감히 쉬거나  
잠들지 못했다.—Life Sketches of James White and Ellen G. White(1880), 188, 189."  
아서 화이트, The Ellen White Biography, 1권, 51, 52쪽.